



3면

“국민 명령 거스르지 못한 것”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음 11월 1일) 제3147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정상화를”

김관영 도지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서 공동대응 결의  
“지역경제 활성화·내부개발 촉진 위한 기업유치와 직결... 역량 집중”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등 결의를 다졌다 (관련기사 3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 선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등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한수원은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소 3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 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반복된 유찰, 6회 입찰을 통해 지난 6월 낙찰자가 간신히 결정됐지만, 한수원은 공용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분담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업무협약 상 지난 4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새만금산업 투자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가

중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기업 및 지역기재 업체 등 사업참여 지연은 물론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광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협치를 통해 한수원이 업무협약 상 송변전설비 사업비용 선투입 등 책임있는 역할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에 행정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군산항을 이용해주세요”... 포트 세일즈단 가동

도, 이용 기업에 물류비 등 인센티브 제공  
도내 수출기업 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

전북도가 군산항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포트 세일즈단을 가동한다. 도는 23일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군산항 이용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에는 물류비 지원을 위해 매년 20여억 정도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최근 물동량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하여 군산항 물류협회와 군산해수청, 군산시 등이 합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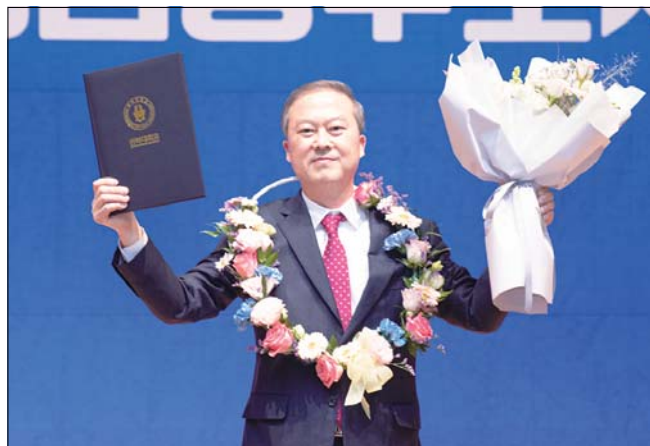
참여하여 포트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포트 세일즈단은 전북도와 군산시 및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군산항 포트 세일즈단은 지난 4월부터 군산 서수농공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완주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산단을 방문해 군산항 이용 잠재고객인 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군산항 시설과 컨테이너 정기항로 현황을 설명하

고 군산항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군산항 부두운영사와 선사 포워딩 업체 등이 참여해 즉석 상담을 통해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을 설명하는 등 군산항 이용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호덕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기업체가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군산항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선거가 치러진 2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양오봉 당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양오봉 교수 최종 선출

“소통·공감으로 화합의 전당 만들 것”  
3차 결선 투표 결과 득표율 60.94%  
총장추천위원회, 교육부에 추천키로

23일 치러진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양오봉 후보가 총장임용후보자로 결정됐다.

1~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결선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날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양오봉 후보는 1위(30.57%)를 그리고 김건 후보가 2위(19.36%)를 이어 송양호 후보가 3위(15.02%)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차 투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에서는 양호봉 후보가 47.84%를 김건 후보가 31.29%를 송양호 후보가 20.87%를 기록했다. 계속된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국 3차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3차 결선투표 결과, 양 후보가 60.94%를 득표해 제19대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한편, 양오봉 교수는 지난 17~18대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선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후 3수 끝에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이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는 최다 득표를 한 양오봉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양오봉 당선인은 “저를 제19대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택해 준 전북대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소통과 공감으로 전북대를 화합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며 “전북대 가족들이 새 희망을 품는 명문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아무래도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구성원의 염원과 희망을 잘 파악해서 구성원분들께 말씀드린 게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muju 무주군** 축! 전주매일 창간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http://mj1614.com>

무주는 청정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무주 반딧불 직거래장터에서 만나보세요!”

전품목 무료택배 이용문의: 063)320-2770, 063)322-0278